



나주시가 차세대 전력망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전력반도체 모듈 실증 인프라 조성에 나서며 국비 확보 활동을 본격화했다. 사진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집적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야경.

나주, 차세대 전력망 핵심 인프라 구축 본격화

‘고전력반도체 모듈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국비 건의 연구 역량·에너지 공기업 집적…사업화 중심지 잠재력

나주시가 차세대 전력망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전력반도체 모듈 실증 인프라 조성에 나서며 국비 확보 활동을 본격화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전력반도체 모듈 실

증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획, 최근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직류전력망 기반 전환에 필수적인 전력반도체 모듈의 시험, 평가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 조성 사업이다.

고전력(SiC), 고주파(GaN), 와이드밴드갭(WBG) 전력반도체 모듈 실증·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전력·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 검증과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방과 친환경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에 활용될 핵심 부품 공정과 분석 장비 도입도 포함된다.

정부가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분산에너지 확대와 AI·스마트전력망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효율 전력

변환을 담당하는 전력반도체 모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핵심 기술과 시험, 평가 인프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뒷받침할 실증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과 전력 분야 산학연 기관이 집적돼 있어 전력망과 에너지 신기술 실증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전력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며 관련 연구 기반도 확충하고 있다.

시는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와 함께 산업부를 방문해 나주가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의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와 산업·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특화 연구역량과 전력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실증과 사업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울러 지난 1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 나주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실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목포대, 전남형 공공의료 인재양성 체계 구축

의대정원 100명 확정 환영…의료 교육·연구 등 체계 마련

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정부의 2030년 목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명 배정확정을 계기로 전남형 공공의료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목포대는 국립순천대학교와의 통합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균형 있는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의과대학이 없었던 지역으로 도서·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의료 부족

과 접근성 한계가 지속돼 왔다.

이번 의대 정원 확정은 이러한 구조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응급·필수 공공 의료분야 인력확충과 지역 정주형 의료인 양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목포대는 순천대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전남형 공공의료 인재 양성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두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서남권

과 동부권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의료 교육·연구·수련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임상·수련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도, 관계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 의과대학·국립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 인프라 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순천,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순천시는 일상 속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등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상해의료비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장항목 세분화 확대, 상해진단 위로금 신설, 자연재해/사회재난 사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사고 당사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문의 후 청구서 및 사고 입증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순천=배철석 기자 2556pk@

고흥, 감성돔 52만 마리 긴급 방류

저수는 특보 발령 피해 최소화

고흥군은 저수운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득량만 해역(도양읍 소록·화도지선) 해상가두리 양식장 9개소에서 감성돔 52만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지난 1월 14일 저수는 특보 단계가 발령되면서 저수운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원조성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군은 지난 1월 23일 저수는 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됨에 따라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득량만 해역 9개 어가에서 감성돔 긴급 방류를 신청했다. 군은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에 전염병 검사를 의뢰해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방류를 마쳤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방류 이후에는 관찰 수협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해당 해역 내 포획 금지와 어구 사용 제한 등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방류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화목가마에 불 지피는 도공 제54회 강진청자축제에 오는 21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려청자박물관 제2호 가마에서 도공들이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며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 불을 지피고 있다. 1300도의 온도로 정성된 불을 지펴 구워진 청자는 22일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사진제공=강진군

강진,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급

전년 대비 10만원 인상…내달 13일까지 접수

강진군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 인상은 농어업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식량 생산,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 보호 등 농어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상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다. 강진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 선도 지자체로, 제도 초기부터 농어업인의 권리 보호와 공익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 왔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는 3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인상된 공익수당 70만원은 전액 강진사랑상품권 지류 또는 착(chak) 앱을 통해 지급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수당은 자격 확인과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지역경제와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투자다”며 “수당 인상을 통해 농어민의 사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